

〈소현성록〉 속 며느리 형상화와 시집살이 양상*

정선희**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소현성록〉 속 며느리 형상화와 시집살이 양상
3. 며느리의 대응 양상과 그 의미
4. 나오는 말

〈국문초록〉

본문에서는 국문장편 고전소설 〈소현성록〉 연작 속 며느리들의 형상화와 시집살이의 양상을 살폈다. 〈소현성록〉연작은 국문장편소설사에서 중요하게 언급되므로 연구 성과도 풍부하다. 특히 인물에 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져 양부인, 소현성, 소운성, 화부인, 석부인, 석과, 소운명 등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이들은 주로 부부관계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기에 ‘아내’로서의 모습에 초점이 있었다. 이제 이러한 논의들을 참고로 하면서, 그녀들의 ‘며느리’로서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 그 형상화 양상과 그녀들의 시집살이 양상, 이에 대한 대응 양상 등에 대해 살펴 보았다.

소현성의 아내인 화부인, 석부인, 여부인과 운성의 아내인 형부인, 명현공주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그녀들은 작품에서 큰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인물 이기에 선택하였다. 그녀들이 겪는 고난이 남편에게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남편과의 관계보다는 이런 일을 겪을 때의 며느리인 그녀들의 상황과 감정, 이를 함께 지켜보는 시댁 가족들 특히 시부나 시모의 반응과 관계들을 주로 살펴보았다.

조선 후기 여성의 시집살이는 서사민요와 사설시조 등의 문학에서도 드러나지만 이들은 노래이기에 감정에 치중하거나 평민 여성의 심리가 들어 있는 것에 비해, 국문장편 고전소설에서는 상층 여성 향유층이 바라는 며느리상이 소상하게 그려져

* 이 논문은 2025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홍익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있었다. 화부인은 시어른에게 약간의 반항을 한 뒤에 바로 교화되는 며느리였지만 이는 가부장제 아래에서 감정을 억압하는 양상이었고, 석부인은 완벽한 여성답게 미리 남편과 시어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며느리였지만 한편으로는 감정 노동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다. 형부인은 현숙하고 참을성 있는 여성이기에, 남편의 편애로 인한 고난을 감내하면서 의연함을 잃지 않는 며느리였지만 명현 공주와의 권력 비대칭 관계 속에서 희생되는 모습이었다. 악녀로 평가되는 여부인과 명현공주는 시집살이를 하지 않지만 스스로 시집에서의 생활을 나쁘게 몰고 가서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고 쫓겨나가거나 죽게 된 며느리였는데 상층 가문의 자기 가문 중심, 혈연 가족 중심 속에서 소외되는 면도 있었다.

<소현성록> 속 며느리들은 가부장제와 가문 중심, 권력 비대칭 사이에 놓여 있었지만 어느 정도 감정을 숨기거나 순화시키면서 가족 관계를 무난하게 유지하며 차분한 대응을 보였다. 세세히 살펴보면 이 여성들은 다른 국문장편 고전소설에 비해 직언을 하거나 당당하게 의견을 피력하거나 논박하기도 하는 여성들이기는 하지만 시부모에게는 유순한 태도로 일관했는데, 이는 당대 국문장편 고전소설 향유층이었던 상층 가문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며느리의 모습일 것이다.

주제어 국문장편 고전소설, <소현성록>, 며느리, 시집살이, 고부, 남편

1. 들어가는 말

국문장편 고전소설은 가문 내의 일을 주로 다루기에 여성인물들이 시댁에서 겪는 다양한 일들을 함께 볼 수 있다.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은 부부 관계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이로 인해 촉발되는 상황이나 문제들은 시댁 식구 전체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들이 며느리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며느리의 시집 생활의 행복과 불행이 나뉘는데, 며느리를 힘들게 할 때에 이를 ‘시집살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부부 관계와 상관없이 그녀만의 행동이나 위상 때문에 어려움과 갈등을 겪기도 하는데 이것도 ‘시집살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논의에서 국문장편 고전소설 속 고부(姑婦)의 모습을 다룬 적은 있지만, 이들에 대한 포폄(褒貶) 양상에 초점을 맞추었기에, 시집살이이란 지 그 안에서의 며느리의 심리, 대응 양상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찰하지 않았다. 또한 아들의 아내로서의 모습, 손자의 어머니로서의 모습도 함께 다루느라 며느리가 느끼는 시집살이의 설움이나 고통에 주목하지 못했다. 며느리들은 부덕과 지혜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순종적이어야 했으며, 시어머니를 극진하게 모시고 정성을 쏟아야 했다. 시어머니는 엄하고 공평하면서도 따뜻하게 며느리를 감쌀 줄도 알아야 좋은 시어머니로 평가되었다.¹⁾

이에 본고에서는 국문장편 고전소설 〈소현성록〉 속 며느리들²⁾의 형상화 양상을 살피면서 그녀들이 시집살이 속에서 느끼는 감정, 그리고 시어머니 외의 가족들에게서 느끼는 감정 등을 함께 다룸으로써 한 명의 여성이 혼인 후에 시가에서 했던 시집살이의 양상과 그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도 고찰하고자 한다. 이 때에 며느리가 겪는 고난이 남편에게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남편과의 관계보다는 이런 일을 겪을 때의 며느리의 상황과 감정, 이를 함께 지켜보는 시대 가족들 특히 시부나 시모의 반응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려 한다.

조선 후기 여성의 시집살이는 서사민요와 사설시조 등의 문학에서도 드러나지만 이들은 노래이기에 감정에 치중하거나 단편이므로, 비교적 소상히 묘사되어 있는 국문장편 고전소설 속 시집살이와 비교하면 다른 점들이

1) 정선희, 「17세기 소설 〈소현성록〉연작의 여성인물 포폄양상과 고부상」, 『문학치료연구』 36, 한국문학치료학회, 2015.

2) 이 작품에는 며느리들이 아주 많지만, 본고에서는 다섯 명을 선택하였다. 작품의 제1 주인공인 소현성의 아내들인 화부인, 석부인, 여부인, 제2주人公인 소운성의 아내들인 형부인, 명현공주이다. 다른 아들들의 아내들 중에 소운명의 아내들 임부인과 이부인도 주목할 만하지만 이들은 석부인이나 형부인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 따로 다루지 않는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 국문장편 고전소설 중에서도 <소현성록> 연작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창작 연대가 17세기 후반으로 거의 확실하고, 당대인들이 수신서(修身書)로 여기거나 유산으로 물려주기까지 했던 작품이므로, 향유층의 며느리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소설이기에 허구가 가미되어 있지만, 그런 허구를 만들어낸 이유도 향유층의 생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소현성록> 연작은 <소현성록>과 <소씨삼대록>을 함께 이르는 말이며, 이 작품은 국문장편소설사에서 중요하게 언급되므로 연구 성과도 풍부하다. 특히 인물에 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져 양부인, 소현성, 소운성, 화부인, 석부인, 석과, 소운명 등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이들은 주로 부부관계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기에 ‘아내’로서의 모습에 초점이 있었다. 이제 이러한 논의들을 참고로 하면서, 그녀들의 ‘며느리’로서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 그 형상화 양상과 그녀들의 시집살이 양상, 이에 대한 대응 양상 등에 대해 살피려 하는 것이다.³⁾

2. <소현성록> 속 며느리 형상화와 시집살이 양상

1) 화부인 - 반항 후 교화되는 며느리 ; 가부장제 속 감정 억압

화부인은 작품의 주인공인 소현성의 첫째 부인이다. 그런데 혼인날부터 신랑만 못하다고 평가되었고 성격도 조급하고 편협하다고 부정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순종하고 유순하지 않다고 남편에게 훈계 듣기 일쑤이고 며

3) 며느리에 대한 연구는 주로 시집살이 민요, 시집살이 설화 등에서의 며느리의 모습과 심리를 논한 것들이 있다. 국문장편 고전소설에서의 며느리를 중점적으로, 종합적으로 다룬 연구는 위의 정선희의 연구 외에는 없지만, 각 여성들에 대한 연구에서 그녀의 며느리로서의 위상이나 대응을 부분적으로 논의한 것들은 몇 편 있다. 참고문헌에 제시한다.

느리로서도 시어머니에게 자주 책망을 듣는다. 나중에는 시누이 월영의 이해와 조력, 시어머니의 배려가 있어 가족으로 잘 정착해가지만 둘째 며느리 석부인과 계속 비교되면서 저평가되는 면이 있다.

아들의 둘째 부인을 들이려고 시어머니가 떠볼 때에도 질투의 마음을 숨기지 못하여 투기한다고 판단한 시어머니가 둘째 며느리를 들이기로 결심한다. 남편이 혼인날 입을 길복을 지으라는 말에도 울며 못한다고 하다가 시어머니의 꾸중으로 짓게 되는데, 홀로 울면서 어머니마저 이리실 줄은 몰랐다고 탄식한다. 같은 여자이기에 마음을 이해해줄 거라 생각했던 것이다. 시어머니 양부인은 훌륭한 여성, 어머니이기에 며느리를 차별하지 않고 친딸같이 사랑한다고 서술되어 있지만 투기는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

화부인은 큰며느리이기 때문에 손님 대접을 주로 맡는다. 둘째 며느리는 시어머니 개인을 봉양하는 일을 하는 반면, 화부인은 서모 석파 등과 함께 술과 안주를 준비하는 일을 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화부인은 시어머니께 불손한 태도로 대들어서 질책을 듣고, 편지로 항변하기도 한다. 이에 시어머니도 긴 편지⁴⁾를 써서 그녀를 책망하는데, 집안의 법도를 어지럽히

4) “또 경이 나가고 내가 이리로 와서 모든 일에서 손을 놓은 가운데, 화씨의 손 안에 있게 되었으니 교만하고 건방진 기운이 일어나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가 이제 여러 자녀와 모든 며느리들을 끼고 있으니 시어머니라도 제어하지 못할 것이라고 여겨 문득 내 말을 조롱하고 연달아 글을 지어 방중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 매우 한스러운 일인 하지만 내가 또한 꾸짖지 못할 것이니, 파리 때문에 화가 난다고 해서 칼을 빼어 드는 것이 어찌 부질없지 않겠느냐? 내가 한 번 뜻을 고쳐먹으면 화씨가 비록 황후의 위엄과 세력이 있을지라도 내 며느리이니 어찌 감히 나에게 거역하겠느냐? 화씨를 내치고 그 자녀를 내모는 것이 상책이겠지만, 오직 모든 손자들의 낫을 보아 이십여 년 동안 자애의 정으로 참아왔던 것이다. 이제 다만 두어 줄 글을 적어서 잘못된 것을 일러주고 모든 일을 없애서 평안케 하며 저의 마음도 스스로 허물을 고치게 할 것이니 어찌 수고롭게 가서 꾸짖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때 양부인의 편지가 먼저 소부(蘇府)에 도착하여 화부인이 받아보았는데, 편지는 다음과 같았다.

…(전략)… 내 네가 처음부터 집안일을 다스리지 못할 줄 알고 이미 이·석 두 사람으로 너를 도우라고 하였으니 내가 만일 시어미의 말을 듣는다면 이·석 두 사람을 헐뜯

고 석부인을 질투한다면서 화부인의 아들 윤경이 집안의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석부인의 아들 운성에게 장자 자리를 주겠다고까지 한다. 나중에 용서를 받기는 하지만 시어머니와 첨예한 갈등을 빚는 거의 유일한 경우이다. 그러니 그녀의 마음은 너무나 무겁고 불행했을 듯하다. 시어머니와의 갈등, 불손했던 태도를 전해 들은 남편 소현성이 6년이나 발길을 끊어버리

고 걸으려는 친한 척하면서 안으로는 거리를 두고 말도 듣지 않을 수 있었겠느냐? 그대놓고 이제 나를 원망하여 내가 마음이 치우쳤다면 헐뜯었다는데 이는 네가 할 도리가 아니다. 시어머니에 대해 지레 짐작하여 원망하고, 비록 적국(敵國)이지만 그의 애매함을 만드는 것은 심히 사람의 행할 일이 아니다. 내 집이 비록 무행하고 너의 지아버가 멀리 갔지만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어찌 너의 경멸을 받겠느냐? 네가 나의 가르침을 괴로워한다면 마땅히 물러나야 할 것이다. 네가 자녀들의 기세를 등에 업고 나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내 아들이 지금은 없지만 너는 그 아이의 부인이다. 그러니 너의 평생의 좋고 나쁨을 만들어 내는 것이 내 손에 있으니 너무 방자하게 굴면 네 스스로에게 해로운 것이다.

슬프다. 사람이 허물을 고치지 않는 것이 이와 같으니 네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짐승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오늘에야 깨달았구나. 경이 평소 너를 박대하지 않았고, 또 길을 떠나면서 효행과 절의를 당부했으니 사람이 돌과 나무가 아니라면 감동할 것이다. 그런데 불과 몇 달 만에 잊어버리고는 나를 오히려 조롱하는구나. 아침에 뜨는 해 같은 진중한 지아버도 배반하고 잊어버렸으니, 태산의 지는 해 같은 시어머니를 헤아리지 않는 것은 예삿일도 아니구나. 내가 이미 석씨를 데려왔는데 네가 화가 나서 집안일을 석씨에게 맡기라고 하는 것은 투기하는 것이다. 내 또 묻겠는데 네가 평상시에 나의 앓고 늙는 것 살피는 것을 석씨처럼 했느냐? 내가 비록 한쪽만 사랑하고 한쪽만 지나치게 미워한다 하더라도 내 슬하의 머느리라든 가히 원망하지 못할 것인데 네가 이제 속 좁게 성질을 내며 나를 책망하고 편벽되게 한 사람만을 사랑한다고 조롱하며 회롱하니 이것은 네가 할 만한 행동이 아니다. 또한 집안일은 석씨가 잘못할까 싶어 맡기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네가 비록 사리에 어둡지만 경의 첫 번째 부인이기 때문에 이치에 따라 너에게 맡긴 것이다. 집안일을 석씨에게 맡기라고 하는데, 네가 첫 번째 부인의 자리에 있으면서 석씨에게 집안일을 총괄하라고 하는 것은 내 집의 법도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부디 온전한 도를 헤아려 집안일을 석씨에게 맡기고자 한다면 너의 첫째 부인 자리를 아울러 석씨에게 주고 윤성을 호적상의 지위를 올려 큰 아들로 삼고 법도를 세운 후 집안 다스릴 권한을 줄 것이다. 만일 집안일 다스리는 것을 괴로워하면서 고집스러운 말을 한다면 내 굳이 너에게 맡기지 않겠다. 속히 첫째 부인의 직분을 이리로 보내고 물러나 네 집으로 가면 자녀들을 처리할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짐작하는 바가 있으니 마음속 생각을 자세히 답하여 알려라. <소현성록> 11권 85~88쪽.

는 등 소외된다.

거의 노년이 되었을 때에도 시어머니의 책망을 받는데, 시어머니가 장기간 출타했을 때에 집안을 잘 다스리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자신의 직계 자손들에게만 후하게 물건을 나눠주는 등 모든 자녀들을 공평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화부인은 일상에서 자신의 욕망대로 움직이다가 종종 시어머니의 꾸중을 듣는 며느리였다. 하지만 바로 교화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보도록 한다.

2) 석부인 - 차분하게 대응하며 신뢰받는 며느리 ; 가족관계 속 감정노동

반대로, 석부인은 혼인할 때부터 현숙하고 뛰어난 여성으로 평가되었으며 며느리로서의 일도 너무나 잘 해나가는 여성으로 묘사된다. 화부인과는 다르게 남편의 셋째 부인을 얻는 혼인에도 혼연하게 길복을 지어 가족들의 칭찬을 듣는다. 시어머니를 섬기는 것에 있어서도 그림자가 응하듯 한다는 표현이 가능할 정도로 그 뜻을 잘 맞추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침 식사 후 어머니의 처소인 취성전에 들어가 날이 저물도록 식사준비를 살펴며 서모들이 하는 일을 돕는다. 식사와 의복을 봉양하는 것에 신임을 받아 결국에는 양부인이 긴요하고 중하게 여기는 것이 첫째 며느리인 화씨보다 더했다⁵⁾고 평가된다. 시어머니가 마음이 적적하여 별장 같은 곳으로 갈 때에도 석부인을 데리고 갈 만큼 신뢰를 받는 며느리이다. 이렇게 시어머니를 잘 모시기에 남편도 그녀가 가족 중에서 효성이 가장 뛰어나다고 여겨 공경하고 후대한다.

시택에서 살 때에 시어머니 봉양 외에도 자녀 교육을 잘 시키면 칭찬을 듣는데, 석부인은 아들들을 엄하게 키우고 며느리를 공평하게 대하기에 존경

5) <소현성록> 4권 126쪽.

받는다. 특히 며느리에게 따뜻한 시어머니인데, 다른 가족들이 모두 외면하던 명현공주에게도 따뜻한 위로를 건넨다. 아들 운숙의 아내 성부인도 부족한 면이 많아 가족들이 한탄하는데 그녀에게도 후덕하게 대하면서 싫은 소리를 하지 않는다. 남편이 며느리를 가르쳐서 고치게 하지 그러느냐고 하자 그녀는 며느리가 사랑스럽고 귀중한 것이 딸아이와 같지만 일의 형세가 다르다면서, 딸은 자기 자식이라 때리고 가르치는 것이 당당하지만 며느리는 사랑은 하지만 다른 집 사람이니까 나를 자기 어미와 같이 여기지 못하여 공경하는 것이다. 그러니 시어머니가 자주 가르치고 잘못을 말했는데도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정이 상하게 되어 속으로는 어려워하고 겉으로는 유순하게 대하기 쉽기에 입을 닫는 것이라고 한다.⁶⁾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를 대하는 자세인데 이렇게 며느리를 아끼면서도 자주 꾸중하지 않고 지켜봐 주는 시어머니를 며느리들이 더 좋아한다고 되어 있다.⁷⁾

이렇게 완벽한 석부인이지만 남편의 첫째 부인인 화부인이 은근히 질투하는 것에는 약간의 불편함을 느낀다. 화씨 같은 이가 있는데 자기를 왜 혼인시켰을까 하고 증대한 석파를 원망하기도 한다. 하지만 한결같이 화평하게 지내며 공손하게 대한다.⁸⁾ 남편이 셋째 부인 여씨를 맞을 때에도 화씨는 남편의 길복 짓는 것을 거부했지만 석씨는 시어머니의 명령에 순종하며 길복을 하루 만에 지어낸다. 그 속도와 재주에 감탄한 시어머니와 남편

6) <소현성록> 9권 83쪽.

7) <소현성록> 10권 128쪽.

8) 원래 소저는 높은 가문의 딸로 사람의 아래가 된 적이 없었는데 하루아침에 소부에 들어와 화씨의 능멸과 천대를 받아도 한결같이 화평한 듯이 지내며 공손하기를 힘썼다. 그러나 석상서가 편안치 못하다는 말을 듣고 일생이 괴로움을 슬퍼하며 참지 못하고 있던 중, 또 석파가 화씨가 어떤 사람인 줄 알면서도 자기를 상서와 인연 맺게 했음을 더욱 이상하게 여겨 밤새도록 울적하여 자지 못하였다. 다음 날 아침에 양부인에게 친정으로 돌아가 부모님을 뵙기를 청하니 허락하였다. 침소에 돌아와 시녀를 시켜 상서에게 친정으로 갈 것을 여쭙니 상서도 또한 허락하였다. 소저가 매우 기뻐하며 친정으로 돌아와 부모님을 뵈니. <소현성록> 2권 73~74쪽.

은 그녀를 더욱 아끼게 되고 다른 가족들도 모두 더욱 호의적으로 대하게 된다. 하지만 석부인이 이렇게 순종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살아간다 해도 이것이 온전히 자발적인 것인지는 의심스럽다. 남편에게는 당당하게 따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기에 시어머니와의 관계나 대외적인 모습에서 특히 자신의 감정을 유화시키는 감정 노동을 행했을 가능성도 크다.

여씨의 혼인 다음 날 아침에도 화씨와 여씨가 아직 시어머니께 문안드리러 나오지 않았음을 알고 자기가 먼저 가서 예뻐를 받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녀들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간다. ‘그녀가 이렇게 한 까닭은 사람들이 혹 거룬다고 할까 두렵고 또 자기만 칭찬할까 괴로웠기 때문이다. 매사에 겸손하고 공경하며 자연스러움이 이와 같으니, 매우 공경하여 중히 여기고 관대히 대하였다.’⁹⁾라고 되어 있다. 겸손하고 공손함이 몸에 밴 사람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양부인은 석부인을 무한 신뢰하기에 석부인을 모해하려는 여씨의 흉계에도 흔들리지 않고 현명하게 판단한다. 하지만 남편 현성은 같은 상황에서 약간 꺾끄러워하며 석부인을 한동안 찾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이 하늘에 죄를 지어 이런 재앙을 받는 듯하니 누구를 원망하겠느냐며 자신의 누명이 잘 벗겨지지만 기다린다고 하며 참고 기다린다. 그러던 중 여씨의 모해로 인해 자신이 설씨와 사통하였다거나 남편을 때리려 했다는 등의 누명을 쓰고 혼서지와 채단까지 불태워진 채 친정으로 쫓겨나게 된다. 석부인의 시집살이는 시어머니나 시누이 등에게서는 없었지만 다른 아내들로 인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이 특별한 점이다.

3) 여부인 - 질투하다가 악해지는 며느리 ; 혈연 중심에서의 소외

여부인은 추밀사 여운의 둘째 딸이다. 여운이 소현성의 인품과 풍모를 좋아하여 황제의 힘을 빌어 딸과 현성을 혼인시켰다. 혼인하는 날 “신부의

9) <소현성록> 2권 89쪽.

꽃 같은 얼굴과 달 같은 태도는 모란꽃이 소나기에 젖은 것 같기도 하고 가을 달이 안개 낀 하늘에 비스듬히 떠 있는 것도 같아, 풍성하고 영화롭고 시원스러운 것이 화씨보다 나은 데가 있으니 온 식구들이 다 기뻐하였다.”¹⁰⁾ 라고 한 것으로 보아 예쁘고 시원스러운 사람이어서 괜찮은 여성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현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고 황제의 권유로 억지로 혼인하게 된 것이어서 시어머니인 ‘양부인은 조금도 기뻐하는 빛이 없었고, 상서도 불행하게 여겼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달갑지 않아 했다. 더군다나 이 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줄 알아서 그녀의 나쁜 마음을 알아보았기 때문이다.¹¹⁾

시어머니 양부인은 매사에 공평하여 비록 속으로는 석부인을 가장 아끼더라도 화부인과 여부인에게 똑같이 대하였으나, 다른 가족들은 여부인을 소원하게 대한 듯하다. ‘여씨에게만은 겉으로는 잘 대했지만 항상 속으로는 화부인과 석부인을 으뜸으로 하니, 이는 곧 소씨 집안의 위아래 사람들이 모두 신의(信義)를 중요하게 여겨 뒤에 온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이었다.’¹²⁾라고 되어 있다. 그럴지라도 여씨가 순종하며 착하게 행동했다면 더 이상의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터인데 여씨는 석부인이 아름답고 빼어나서 남편과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것을 질투하게 된다. 그래서 석부인의 행동인 것처럼 꾸며 시어머니의 처소에 어머니를 상하게 해달라는 기도문을 갖다 놓는다든지 어머니의 음식에 독을 타기도 한다. 하지만 석부인을 신뢰하는 시어머니의 현명함 때문에 석부인을 모함하려던 의도는 성취되지 못한다. 이에 얼굴을 바랄 수 있는 단약인 개면단 등을 사용하여 석부인인 것처럼 남편에게 다가가 음란한 행동을 한다든지, 석씨와 간통한 것처럼

10) <소현성록> 2권 79~80쪽.

11) 신부를 맞아왔다. 그 용모가 아름다웠으나, 양부인과 상서가 기뻐하지 않는 것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아 바르지 못함을 알고 놀랐기 때문이다. <소현성록> 2권 88쪽.

12) <소현성록> 2권 90~91쪽.

꾸민다든지 하여 결국에는 석부인 모해에 성공하게 된다. 석부인을 친정으로 쫓겨나게 하고 화부인을 음란한 아내로 오인하게 하여 거의 뜻을 이룬 듯하였으나 나중에는 남편이 개면단의 존재를 알게 되어 친정으로 쫓겨나게 된다.

소현성의 세 아내 중 셋째인 여부인은 이렇게 시집에서의 생활이 마무리된다. 오직 남편의 다른 아내들을 모해하는 것으로만 채워져 있다.

4) 형부인 - 고난 속에서도 의연한 며느리 ; 권력 비대칭 속 희생양

형부인은 석부인의 첫째 며느리이다. 시부모님을 잘 모시고 시누이나 동서들과도 우애 있게 지낸다. 시서조모인 석파도 뒷날 소씨 가문의 풍속을 이을 사람은 형씨라고 할 정도로 칭찬한다. 남편 운성도 그녀를 지나치게 사랑하여 그 외의 아내들은 본 체도 안하는데 이것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하여 힘든 생활을 하게 된다. 명현공주가 운성과 혼인하게 되자 임금이 형부인을 친정으로 쫓아내게 하여 한동안 친정에서 살기도 한다. 15세의 나이에 이런 곤경을 당하게 되자, 시부인 소현성은 그녀를 위로하면서 탄식한다. 시집은 지 3년 되는 동안 부족함이 없었고 행실도 정숙하고 우아했으며 방탕한 운성의 내조를 호방하게 하는 등 성덕(盛德)을 갖추었는데, 이렇게 되니 내 아들이 복이 없고 가문의 운이 불행한 탓인가 보다고 한다.¹³⁾ 태부인도 위로하면서 곧 다시 보게 될 것이니 마음을 너무 상하지 말라고 하고, 시모인 석부인은 울면서 슬퍼한다.

형부인이 친정으로 간 지 한 달쯤 되자 운성이 상사병이 나 몇 달이 지나자 병세가 위독해진다. 그를 살리기 위해 석부인이 식음을 전폐하기도 하고 태부인이 오라고 권하기도 하여 우여곡절 끝에 형부인은 시가로 돌아오게 된다. 이후에도 운성의 편애 때문에 형부인이 곤란을 겪게 되자, 시모인

13) <소현성록> 6권 18~19쪽.

석부인은 “불쌍하다, 어진 며느리야. 지아버가 지나치게 좋아하여 약한 자질로 괴로움을 겪으니 내 마음이 배이는 듯하다.¹⁴⁾”라며 탄식한다.

운성과 명현 공주 사이에서 더 이상 해법이 나오지 않겠다 싶은 형부인은 급기야 자결을 시도했다가 열흘 만에 깨어난다. 이 때에도 석부인은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시고모인 소부인도 자신의 젊은 날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위로해준다. 시어른들의 위로로 형부인은 마음을 풀고 다시 살아가게 되며, 남편에게 공주와 화목하게 지내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등 셋이 잘 지내기 위해 계속하여 노력한다. 하지만 공주가 형씨를 미워하여 연못에 밀어 넣으려고까지 하고 급기야 대궐에 잡혀 들어가 궁인들의 꺾박을 당하고 죽을 위기에도 놓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씨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상황을 조리 있게 말하는데, ‘달 같은 풍채가 가을 서리를 무릅쓴 듯하고, 꽃 같은 태도는 옥매화가 눈 위에 비스듬히 서 있는 듯하다.’¹⁵⁾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황후가 보기에다 그녀의 너그럽고 그윽하며 어질고 꽃다운며 상쾌하고 활달하여 보이는 것이 공주와 천지 차이가 날 정도여서 놀랍다며 그래서 마음을 푼다고 되어 있을 정도이다.

함께 옥에 갇힌 운성이 죽을 위기에 처하자 형부인은 팔을 베어 그 피로 혈표(血表)를 써서 올리는데¹⁶⁾ 이를 보고 황제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운성을 용서한다.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조리 있으면서도 감동적으로 편지를 써서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여성인 것이다. 지혜와 강인함으로 죽을 위기를 넘기고 집으로 돌아온 형부인은 이제 공주 궁에 가서 지내게 되는데 공주가 그녀를 괴롭히는 것이 날로 심해진다. 즉 형부인은 시부모의 시집살이는 전혀 없는데, 동렬의 다른 부인의 시집살이를 호되게 하는 것이다. 남편의 편애로 인하여.

14) <소현성록> 6권 33쪽.

15) <소현성록> 7권 71쪽.

16) <소현성록> 7권 74~77쪽.

공주의 보모 양씨의 꾀박 속에서도 오히려 그녀를 계도하여 감동하게 하는 등 잘 지내보려 했지만 공주의 괴롭힘은 벗어나지 못하여 병이 들게 된다. 결국에는 친정에 가서 지내다가 죽었다고 연극을 하기에 이른다. 살기 위해서는 이럴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살아 있다는 것이 드러나지만 다시 시가로 돌아오지는 못하고 윤부인이 있는 강정으로 가서 아들을 낳는데 산후병에 들어 많이 아프게 된다. 그녀가 살아 있음을 알게 된 공주가 황제에게 알려 운성과 형부인이 또다시 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적극적인 변론 덕분에 무마되고, 공주가 죽은 뒤에는 비교적 평온하게 살게 된다. 형씨의 의연함은 어쩌면 명현공주와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었을지도 모른다.

5) 명현공주 - 소외되다가 자멸하는 며느리 ; 자기 가문 중심의 배타적 묵인

명현공주는 운성과 혼인하기 전부터 시댁 식구들이 달갑지 않아 했고, 혼인한 뒤 운성이 외면해도 식구들이 방관해서 더 외로웠다. 혼인한 이후로 집안의 며느리들이 더욱 공주를 좋아하지 않았으며, 시부는 좋아하거나 미워함 없이 침묵하는 편이었고, 시조모와 시모들은 은근하게 대했다고 한다. 또 ‘부마의 공주 박대함이 매우 심하지만 이를 이는 듯 모르는 듯 화해하기를 권하지 않으니 부마가 더욱 공주를 멸시하였다.¹⁷⁾’라고 되어 있다. 시어머니 석부인만 운성에게 그녀를 받아들이라고, 너그럽게 대하라고 한다. 석부인은 운성이 한쪽으로만 치우쳤기 때문에 여자의 원한이 깊어져 잘못된 곳에 빠진 것이라면서 꾸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주의 아버지의 부도덕성에 대한 반감, 여자가 남편을 골랐다는 점에 대한 반감, 혼인과정에서의 불편함 등을 계속 생각하는

17) <소현성록> 6권 46쪽.

남편 운성. 이런 상황에서 그녀의 편이 되어준 사람이 없었다.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기에 억울하고 아쉬운 감정들을 토로할 곳이 없는 외로운 상황인 것이다. 가족들에게 은근히 따돌림당하는 분위기였기에 더욱 악에 받치기도 하고, 남편의 계속되는 편애에 화가 나기도 하다가 급기야는 운성을 죽이고 싶어하게 된다. 소무신이라는 무당에게 독한 방문(方文)을 쓰게 하여 운성이 죽기를 빌었으나 시부인 소현성의 예지력으로 성사시키지 못하고 실패한다. 나중에는 시할머니께 불손한 말을 하여 시어머니 석부인의 노여움을 사기도 하고, 시아버지와도 갈등을 보여 집안의 감옥에 갇히게 되기까지 한다. 형부인이 살아 있음을 황제에게 말하여 형부인과 운성이 별을 받게 되자 소현성이 입궐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막는데 이를 들은 공주는 이성을 잃고 시어머니, 시할머니를 욕하더니 시아버지에게 “필부 소경아, 네가 무슨 이유로 내 허물을 황제께 참소하였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한 칼에 죽으리라.”¹⁸⁾라고 막말을 하여 사옥(私獄)에 갇혔다가 겨우 풀려난다. 그 뒤로는 말이 순순하여 옛날의 기색이 적어지지만 운성에게는 여전히 서슬 퍼렇게 화를 내고 분해하면서 점점 병들어간다. 병문안 온 운성에게 철 여의봉을 휘두른 후로는 운성도 오지 않고 혼자서 앓다가 19세에 요절한다.

명현공주는 시어머니 석부인이 현철하고 며느리를 이해해주는 면이 있어 시집살이라고 할 만한 것은 하지 않았지만 대다수의 시댁 식구들과 화목하게 지내지 못했고, 그들의 배타적 묵인 속에서 불행하게 지낸 며느리이다.

3. 며느리의 대응 양상과 그 의미

화부인은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에도 남편이 몇 달을 출타했던 시기였기에 가족들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칠팔 개월을 지냈을 정도로 시어머니나

18) <소현성록> 8권 66쪽.

시댁 식구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쉽게 하지 못한다. 또 남편이 사사로운 정을 말하지 않고 너무 진중하였기에 남편을 태산같이 중히 여기고 성격이 조급했기에 그 사랑으로 인해 병이 들 지경이 된다.¹⁹⁾

그렇지만 시어머니에게 약간의 반항을 한 뒤 바로 교화되는 며느리이다. 서모인 석과가 소현성의 재취를 들이려 한다고 화를 내고 욕을 하는데, 이로 인해 남편 소현성에게 책망을 듣고 시어머니에게도 질책을 듣는다. 시어머니의 말이 위엄 있고 그 이유가 명백하니 모골이 송연하여 분명하게 깨달아 잘못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바로 앞의 서술에 ‘화씨가 밤낮으로 석과와 사랑을 원망하였는데’²⁰⁾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자발적인 반성이라기 보다는 자신의 뜻이 계속 꺾이면서 불행해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후에도 남편이 자신을 찾지 않자 열흘 이상 식음을 전폐하고 울다가 병이 나는 것으로 보아 마음의 상처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8개월이나 남편이 안부를 묻지 않자 곡기를 거의 끊어 20일이 지나니 거의 죽을 지경이 된다. 시어머니의 꾸중과 남편의 무시를 겪으면서 더욱 외로웠을 것이다. 화부인은 분노가 커져도 그것을 말하지 못하고 ‘한 마디 말도 못하고 또한 먹지도 않는’²¹⁾ 것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화부인은 주로 “분을 참지 못하였으나 그의 엄숙함을 보고 말을 꺼내지 못하였다. 다만 소매로 낮을 가리고 눈물을 흘리며”, “화씨가 어찌할 수가 없어 촛불 아래 앉아 밤이 새도록 자지 않는데도”, “화씨가 노한 기운이 갑자기 일어나 밤새 원망하며 책상을 마주하고 앉아 자지 않았다.”²²⁾ 정도

19) 화씨가 천성은 영민하지만 성격이 조급하고 자못 강했으며 또 사랑을 태산같이 중히 여겨 온정이 가득해서 병에 이를 지경이고 친애하는 것이 극진하였다. 그런데 사랑은 씩씩하여 일찍이 사사로운 정을 일컫는 일이 없고 공경은 하지만 너무 애중하기에, 투기하는 일이 심하였다. <소현성록>1권 92쪽.

20) <소현성록> 2권 3쪽.

21) <소현성록> 2권 14쪽.

22) <소현성록> 2권 26~27쪽.

로 자신의 기분을 드러낼 뿐 크게 어떤 행동을 하지는 못하면서 살아간다. 남편이 석부인을 들이는 날도 “화씨가 침소(寢所)로 몰려나와 눈물을 비같이 흘리며, 스스로 세상에 머물러 살고 있음을 원망하였다.”²³⁾라고 되어 있다. 즉 화부인은 유교적 가부장제 하에서 감정 표현을 억압 당하면서 복종해야만 하는 상황이기에 불행한 여성이다.²⁴⁾ 화부인의 ‘감정적’인 면모는 당대의 관점으로 보면 최대의 단점일 수 있다. 엄하지 않고 강단이 없으며 약하다고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자신이 시어머나가 되었을 때는 어떠한가? “화부인이 모든 며느리를 사랑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람의 그릇이 크지 못하여 매우 거리감이 있게 대하였다. 평소에 침상에서는 절대 보지도 않고 모든 일에 예의를 갖추 대담하니 며느리들이 모두 모시는 것을 싫어 하고 꺼리는 일이 많았다.”²⁵⁾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며느리들이 서먹하게 여겼고, 공경하지만 평안하게 여기지는 않았다고 한다. 반면에, 석부인은 며느리들을 친밀하게 대하고 사랑하는 것이 친딸보다 못하지 않고 눈앞에서 잡다한 놀이도 하게 하니 모두 화평하여 좋은 기운이 가득했다²⁶⁾고 한다. 즉 며느리가 좋아하는 시어머니는 함께 길쌈, 수놓기, 글 읽기, 놀이, 담소 등을 하면서 지내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를 좋아한다. 화부인처럼 지나치게 예의를 갖추면서 거리감 있게 대하는 것은 좋지 않게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화부인에 비해, 완벽한 여성으로 평가되는 석부인의 시집살이는 자기 자신의 흠보다는 주로 남편의 오해와 박대에 원인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 <소현성록> 2권 49쪽.

24) 정선희, 「가부장제하 여성으로서의 삶과 좌절 - <소현성록>의 화부인」, 『동방학』 20,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1.

25) <소현성록> 10권 128쪽.

26) <소현성록> 10권 128쪽.

고 석부인은 남편의 마음과 상황을 미리 헤아리고 그에 차분하게 대응한다. 가장 억울한 사건이었던 외간 남자와의 사통 모해 때문에 친정으로 쫓겨났다가 되돌아와 남편의 병간호를 해야 했던 부분에서도 그러하다.

석씨가 그가 찬 기운에 병이 날까 두려워 나아가 옷을 당겨 덮으니, 상서가 문득 깨어서는 즉시 옷을 여미고 벽을 향해 돌아누웠다. 원래 상서가 석씨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석참정과 석장군이 칼을 들어 자기를 죽이려 한 일과, 참정이 노하여 얼굴빛을 바꾼 일에 화가 난 것이다. 또 석씨가 겉으로는 평안한 표정을 짓지만 그 마음에는 깊이 맺힌 것이 있음을 생각하고, 자기가 먼저 말을 꺼냈다가 그녀가 대답하지 않는 욕을 볼까 하여 스스로 싸늘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석씨는 영민하고 마음이 특 트인 여자이기에 이를 알아보고 일부러 모르는 체하며 운순하고 나직하게 그리고 친근하게 간호한 것이 스무날 정도가 되었다. 그런데도 상서가 끝내 낫지 않고 증세가 날로 위중하니 온 가족이 망극하여 하였다. 화씨도 우연하게 얻은 병이 쉽게 낫지 않아 오랫동안 앓고 있었기에 석씨는 서당을 잠시도 떠나지 못하였다.²⁷⁾

자신을 믿지 못해 혼서지와 채단을 태우고 친정으로 쫓아낸 남편이 자신이 아들을 낳았다는 말을 듣고도 찾아오지도 않았지만 그가 어떤 마음인지 알아차리고 묵묵하게 간호만 지극정성으로 하는 모습을 보인다. 시어머니 봉양도 진심으로 하는 며느리였듯이 남편을 대할 때에도 정성을 쏟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녹록한 여성은 아니다. 자신이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던 남편을 은근히 질책하기도 한다.²⁸⁾ 자신의 말에

27) <소현성록> 3권 69~70쪽.

28) 석씨가 생각 없이 참정에게 창피를 주려고 아이에게 말하였다. “어떤 숙녀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혼서(婚書)를 불 지르고 없는 일을 했다고 하며 구박하여 내쫓는 화를 보기 쉬울까 두렵구나.” 참정이 정색하고 말하였다. (중략) 석씨가 겸손하게 말하였다. “제가 감히 군자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이 마음이 근색하고 좁아 무겁고 큰 도량이 없어 널리 생각하지 못하고 늘 군자의 밝은 처치를 원하였습니다. 그런

남편이 엄숙하게 변명을 할 때에 자기가 경솔했다고 말하기는 하지만, 그 태도는 표연하고 엄숙한 것이 눈 위에 서리가 내린 것 같다고 묘사된다. 그래서 남편이 이를 보고 그 말이 조롱하고 노기가 흐른다고 느낄 정도이다.²⁹⁾

한편, 형부인은 현숙하고 참을성 있는 여성이다. 그렇지만 남편의 편애 때문에 공주의 미움을 사서 갖은 고난을 당한 여성이다. 상대가 공주이기에 대응하기 보다는 피하거나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친정이 든든하기에 최악의 시기에는 친정에 피해 있으면서 연극을 하기도 하고 아버지나 오빠들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작품 속에서 형씨 가문이 비교적 자주 언급되고 형부인의 아버지가 현명한 사람이며, 형제들도 운성과 친하게 지낼 만큼 어느 정도 급이 맞는 친정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남편 운성이 자기 어머니의 허물을 말했을 때에는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냉소하면서 수궁하지 않는데, 이를 두고 서술자는 다음과 같이 논평하면서 석부인과 비교한다.

대개 형씨의 성덕이 특출하기는 하나 속마음이 한결같은 석부인께 미치지 못하여 겉으로는 기뻐하지만 사람의 허물을 보면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이 (7면) 분명하였다. 그런데 석부인은 속으로 편안하지 않게 여기면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고, 비록 말자(末者) 비첩(婢妾)이라도 정성으로 가르쳤으며 속마음이 한결같이 정성을 기울여 너그럽고 후덕하게 사람을 대접하였고 그 허물을 보면 바른 도리로 꾸짖을지언정 뒷이야기를 하지 않으며 마음에 담아 두지 않았다. 그런데 형씨는 이렇지 못하여 잠깐 간사한 마음을 품었기에 짐짓 성녀(聖女)는 되지 못하고 어질고 사리에 밝은 부인이라 하는 것이었다.³⁰⁾

데 지금 밝고도 바른 책망을 받으니 어리석은 저의 그림을 깨달았습니다.” <소현성록> 4권 15~16쪽.

29) <소현성록> 4권 16쪽.

30) <소현성록> 9권 6~7쪽.

형부인은 매사에 참을성 있고 시부모 섬기기도 잘하였지만 석부인처럼 ‘거룩한 여성’은 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것이다.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년 이후에는 다소 원만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남편 운성이나 서술자는 ‘형부인의 기상이 강렬하고 말씀이 냉담’하다고 한다. 남편이 그녀의 기를 꺾으려고 매몰찬 낯빛을 짓거나 일을 까다롭게 처리하지만, 그녀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냉정하고 엄한 것이 유지되고 행동을 법도대로 하여 매우 위엄 있는 태도를 신중하게 한다³¹⁾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태도를 참지 못한 운성이 그녀와 대면하려 하지 않는 등 소원하게 되자, 시어머니는 아들을 나무라면서 형부인을 두둔한다. 이렇게 시어머니가 칭찬하는 며느리여서 시집살이는 전혀 없지만 남편으로 인해 공주 시집살이를 했다. 또 중년에는 남편이 기세를 잡기 위해 은근히 소원하게 대하고 급기야는 친정으로 가라고 하지만 형부인은 의연하다. 그녀의 기를 꺾기 위해 첩 소영을 죽이겠다고 하는 등 폭력적으로 대하는 남편 앞에서도 서리 같은 태도를 유지한다. 결국에는 남편의 기세가 누그러져 화락하게 지내며 영화를 누리게 된다. 시아버지의 생일연에서 시조모 태부인은 형부인이 젊은 사람 중에서 특히 빼어나서 고생을 참혹하게 당했다고 하며 위로할 정도로 인정을 받는다.

며느리 중 악녀로 평가되는 여씨와 명현공주는 시집살이를 하지 않지만 스스로 시집에서의 생활을 나쁘게 몰고 가서 자폭하거나 자멸했기에 그녀들의 대응양상에 대해 더 이상의 설명은 불필요하다.

지금까지 살핀 다섯 명의 며느리 외에도 이 작품에는 몇 명의 며느리들이 더 등장한다. 특히 소운명의 아내 임씨와 이씨 등도 비중이 꽤 크지만 임씨는 시부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하는 며느리이고 이씨는 악녀 꺾기 때문에 계속 수난을 당하는 며느리라는 면에서 앞에서 다룬 석부인, 형부인 등

31) <소현성록> 9권 44쪽.

과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 따로 다루지 않았다.

고전소설 중에서는 국문장편 고전소설에서 며느리들의 시집살이나 그에 대한 대응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고전시가 중에서는 서사민요를 통해 이런 내용들을 잘 알 수 있다. 민요는 실생활에서 불리는 것이어서 생활을 좀 더 생생하게 담고 있지만, 시집살이를 소재로 한 서사민요에서는 허구 속의 인물의 발화를 통해서 시집식구들을 비판한다는 면에서 소설과 통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옷을 찢고 승복을 입고 가출을 하는 등 충동적으로 분노를 표출하거나, 소외감으로 자살을 하는 등 항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소설보다 급진적이다.

사설시조들에서도 시아버지는 회초리처럼 뼈쩍 말랐다고, 시어머니는 햇빛에 바짝 마른 쇠똥 같다고, 시누이는 송곳 부리처럼 뽀족하다고 시댁 식구들을 묘사하여 식구들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반박하는 느낌을 준다. 메꽃같이 건강하고 예쁜 자기를 못마땅해하는 것에 대한 항변이라 해석할 수 있다. 또 사위와 함께 가족에서 소외시키려는 시부모, 죽어도 되는 존재로 며느리를 지목하는 시부모 등이 등장하여 며느리를 진정한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다.³²⁾

서사민요나 사설시조와 비교할 때에 국문장편 고전소설인 <소현성록>에서의 며느리들은 대체로 의연하면서도 차분한 대응을 보였는데, 이는 이 작품의 시어른들이 성인군자거나 현숙한 인물들이기에 현실과는 다르다는 차이가 있다. 또 여타 국문장편 고전소설에 비해서 이 작품의 여성 인물들이 때로는 직언을 하고 당당하게 의견을 피력하거나 팽팽하게 논박하기도 하는 인물들이지만 시부모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이런 점들이 작품의 주요 향유층이던 상층 가문의 며느리의 모습임을 알 수 있다.³³⁾

32) 최지혜, 「시조에 나타난 가족 돌봄의 양상과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2024.01.31., 51~52쪽.

33)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소현성록>은 특히 상층 가문에서 읽히고 전해지면서 수신서

4. 나오는 말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국문장편 고전소설 〈소현성록〉 연작 속 며느리들의 형상화와 시집살이의 양상을 살폈다. 그녀들이 시집살이 속에서 느끼는 감정, 그리고 시어머니 외의 가족들에게서 느끼는 감정 등을 함께 다룸으로써 한 명의 여성이 혼인 후에 시가에서 했던 시집살이의 양상과 그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도 고찰한 셈이다. 소현성의 아내인 화부인, 석부인, 여부인과 운성의 아내인 형부인, 명현공주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그녀들은 작품에서 큰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인물이기에 선택하였다. 그녀들이 겪는 고난이 남편에게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남편과의 관계 보다는 이런 일을 겪을 때 시댁 가족들 특히 시부나 시모의 반응과 관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녀들의 상황과 감정을 살펴보았다.

조선 후기 여성의 시집살이는 서사민요와 사설시조 등에서도 드러나지만 이들은 노래이기에 감정에 치중하거나 소략하다. 하지만 국문장편 고전소설에서는 며느리에 대해 소상히 묘사하면서 그녀들의 심리나 대응 양상을 비교적 자세히 서술하였다. 화부인은 시어른에게 약간의 반항을 한 뒤에 바로 교화되는 며느리였고, 석부인은 완벽한 여성답게 미리 남편과 시어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며느리였다. 하지만 이런 대응이 완전히 자발적인지는 의심스럽다. 가부장제 하에서, 가족 관계 안에서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거나 유화하여 보여주며 살아갔다고 할 수도 있다. 형부인도 현숙하고 참을성 있는 여성이기에, 남편의 편애로 인한 고난을 감내하고 극복해 가면서도 의연함을 잃지 않는 며느리였지만, 명현공주와의 권력 불평등 속에서 생존해나가기 위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다. 약녀로 평가되는 여부인과 명현공주는 시집살이를 하지 않지만 스스로 시집에서의 생활을 나쁘게 몰고 가서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고 쫓겨

(修身書)로서의 역할도 했던 대표적인 작품이다.

나거나 죽게 되는 며느리였는데, 그녀들도 역시 상층 가문의 자기 혈연 중심 중의 속에서 소외되는 여성들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소현성록> 속 며느리들은 시집살이에 대해 의연하면서도 차분한 대응을 보였다. 다른 국문장편 고전소설들에 비해 직언을 하거나 당당하게 의견을 피력하거나 논박하기도 하는 인물들이기는 하지만 시부모에게는 유순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런 모습이 당대 국문장편 고전소설 향유층이었던 상층 가문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모습일 것이다.

참고문헌

- 『소현성록』 15권 15책, 이화여대 소장본.
- 조혜란·정선희·허순우·최수현, 『소현성록』 1~4권, 소명출판사, 2010, 1~400쪽 내외.
- 강진옥, 「고전 서사문학에 나타난 가족과 여성의 존재양상」, 『한국 고전문학 속의 가족과 여성』, 월인 출판, 2007, 65~104쪽.
- 공혜란, 「가문소설의 여성인물에 대한 구조적 폭력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1~173쪽.
- 김은일, 「양문록계 소설에 나타난 여성의 삶」, 『고소설연구』 42, 한국고소설학회, 2016, 217~239쪽.
- 이수희, 「공주혼 모티프의 모티프 결합 방식과 의미 - <구운몽>·<소현성록>·<유씨삼대록>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19, 한국고전연구학회, 2009, 251~278쪽.
- 이순구, 「조선시대 가족제도의 변화와 여성」,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0,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회, 2005, 119~142쪽.
- 정선희, 「가부장제하 여성으로서의 삶과 좌절 - <소현성록>의 화부인」, 『동방학』 20,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1, 57~84쪽.
- _____, 「조선후기 여성들의 말과 글 그리고 자기표현 - 국문장편 고전소설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7,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3, 173~212쪽.
- _____, 「17세기 소설 <소현성록>연작의 여성인물 포뮬양상과 고부상」, 『문학치료연구』 36, 문학치료학회, 2015, 9~39쪽.
- _____,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의 공주/군주 형상화와 그 의미 - 부부관계 속 여성의 감정과 반응 양상에 주목하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1,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5, 183~216쪽.
- _____, 「요구되는, 욕망하는 여성상 - <소현성록>의 석부인」, 『한국고전연구』 47, 한국고전연구학회, 2019, 65~96쪽.
- 최수현, 「<현몽쌍룡기>에 나타난 친정/처가의 형상화 방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5,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7, 325~362쪽.
- 최지혜, 「시조에 나타난 가족 돌봄의 양상과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2024.01.31., 41~54쪽.

- 탁원정, 「가정소설에 나타난 ‘집’ 연구 - <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을 대상으로」, 『한국고전연구』 12,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407~450쪽.
-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편, 『한국 고전문학 속의 가족과 여성』, 월인, 2007, 1~378쪽.
- 한정미, 「어리석은 장인의 사위 바라기와 고집불통 사위의 장인 밀어내기-〈완월회맹연〉의 응서」, 『고전서사문학에 나타난 가족』, 보고서, 2017, 199~246쪽.

ABSTRACT

The portrayal of daughters-in-law and the patterns
of married life in 〈SoHyunSungRok〉

Jeung, Sun-hee

In this article, the portrayal of daughters-in-law and the patterns of marriage life are examined through the serialized classic Korean novel 〈SoHyunSungRok〉. It discusses the emotions felt by these women during marriage, as well as their feelings towards family members other than their mothers-in-law, thereby reflecting on the aspects of married life depicted in poetry by a woman after marriage and her response to it. The focus is primarily on the wives of SoHyunSung and UnSung : Madame Hwa, Madame Seok, Madame Yeo, and madame Hyeong, as well as Princess Myeonghyeon.

Although the marriage lives of women in the late Joseon Dynasty are also depicted in literary works such as folk songs and poetry, these tend to focus on emotions or are relatively short. However, in classic Korean novels, the portrayal of daughters-in-law is subtly detailed, focusing on their psychology and responses. Madame Hwa is portrayed as a daughter-in-law who rebels slightly against her elders but quickly becomes obedient after admonition. Madame Seok is depicted as a daughter-in-law who calmly and perfectly responds by understanding the hearts of her husband and elders in advance. Madame Hyeong, being wise and patient, endures hardships caused by her husband's favoritism without losing her composure, showing a dignified attitude. Madame Yeo and Princess Myeonghyeon, though not experiencing married life, become troubled or are driven away or killed due to their negative attitudes towards married life.

The daughters-in-law in 〈SoHyunSungRok〉 exhibit obedient and calm responses to married life. While they are capable of speaking frankly or

expressing their opinions confidently compared to other classic Korean novels, they maintain a docile attitude towards their parents-in-law. This may be considered desirable behavior in the upper-class families that were the audience for contemporary novels.

Key Words classic Korean novel, <SoHyunSungRok>, daughters-in-law, the patterns of marriage life, mothers-in-law, wife, husband

논문투고일: 2025.06.27.

심사완료일: 2025.08.11.

게재확정일: 2025.08.13.